

박정호 “SK실더스, EQT와 글로벌 종합 보안회사로 육성”

(SK스퀘어 부회장)

SK스퀘어 ‘MWC2023 간담회’
발렌베리기에 실더스 지분 매각
EQT, ‘SK 실더스’ 최대주주로
SK스퀘어, 8646억 재원 확보
무인매장 등 신규사업에 활용



박정호 SK스퀘어 부회장이 지난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EQT에 SK실더스 지분을 매각한다고 밝혔다. SK스퀘어는 2대 주주로서 EQT와 SK실더스를 공동경영하게 된다. /SK스퀘어

SK스퀘어가 스웨덴 발렌베리기의 글로벌 투자회사 EQT 산하 EQT인프라스트럭처(EQT)와 SK실더스를 공동 경영에 나선다.

박정호 SK스퀘어 부회장은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2023이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8일(현지시간) 기자 간담회를 갖고 “EQT와 SK실더를 국내 1위를 넘어 글로벌 종합 보안 회사로 키운다는 미래 지향점을 가지고 공동 경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QT는 SK스퀘어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일부와 맥쿼리자산운용 컨소시엄의 지분 전체를 약 2조원에 인수하고 추가로 신주를 취득해 SK실더스의 최대 주주(68%)가 된다.

SK스퀘어는 기존 SK실더스 지분(63.1%) 중 31.1%를 EQT에 넘기며 8646억원의 신규 투자재원을 확보했다. 남은 지분은 32%(지분가치 약 1조

원)다. SK스퀘어는 2대 주주로서 SK실더스를 공동 경영한다.

박 부회장은 “이번 투자유치로 SK스퀘어는 최근 저평가된 인수합병(M&A) 시장에서 ‘빅딜(Big Deal)’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게 됐다”며 “유연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전략을 실행한다는 SK스퀘어의 비전이 출범 1년여 만에 큰 결실을 맺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SK실더스는 기업가치 5조원 이상(지분가치와 부채

포함)을 인정받았다. 이는 SK실더스 인수 당시 3조원대의 기업가치를 약 2배로 키워낸 것으로 2021년 11월 투자 전문회사로 출범한 SK스퀘어의 최대 투자성과다.

SK스퀘어는 EQT와 협업체 올해 3분기 내를 목표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결합심사와 각종 정부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2대 주주로 밀려남에도 공동 경영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은 EQT 측 제안이다. 박 부회장은 “본인들이 원하는 경쟁

스타일이 있겠지만, SK브랜드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같이하자고 해서 공동 경영으로 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승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동 경영 방식은 물론 이사회 구성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SK스퀘어 지분을 인수한 EQT는 1994년 현재 EQT 회장인 콘니 온슨과 스웨덴의 저명한 발렌베리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투자회사 ‘인베스터AB’에 의해 설립됐다. 인베스터AB가 지분을 소유한 주요 기업들은 EQT를 비롯해 ABB, 아스트라제네카, 아트라스콥코, 일렉트로룩스, 에릭슨, 사브(SAAB) 등이 있다.

EQT는 전 세계에서 최근 5년간 자금 모집액이 세 번째로 큰 사모펀드 운용사(PEF)이며, 총운용자산(AUM)이 약 156조원(1130억 유로)에 달한다. EQT는 약 200개의 포트폴리오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SK스퀘어는 먼저 2000억원 규모의 신주를 발행해 무인 매장, AI 기반 보안 서비스 등 SK실더스 신규사업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SK실더스로서는 신주 발행을 통해 2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미래 성장을 꾀

다는 포부다.

또한 EQT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 보안기업들과 시너지를 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 ▲사이버·융합보안 구축형 사업모델 확대 ▲물리보안 사업모델 혁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QT는 북미, 유럽지역에서 보안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세큐리타스(Securitas), 안티시맥스(Anticimex), CYE, 오픈 시스템스(Open Systems)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SK실더스는 현재 미국, 중국, 헝가리에 현지 법인을 두고 있으며, 베트남과 일본에서는 현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관제 플랫폼을 수출하거나 보안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향후 글로벌 사업 강화를 위해 해외 합작회사(Joint Venture) 설립과 전략적 인수합병 등을 추진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박정호 SK스퀘어 부회장은 “SK스퀘어 출범 후 첫 투자 풀사이클 성과를 시작으로 주주가치를 본격 제고하겠다”며 “국내 보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LG엔솔-혼다, 북미 전기차 공략 ‘첫 삽’

배터리 생산 합작공장 기공식
연간 생산능력 40GWh 규모
44억불 투자, 2200개 고용창출
생산 배터리, 혼다에 독점 공급



LG에너지솔루션-혼다 합작 CEO 이혁재 부사장과 COO 릭 리글이 합작공장 조감도를 공개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과 일본 완성차 업체 혼다와 합종연횡을 통해 북미 시장을 공략한다. 두 회사의 합작법인은 한국 배터리 업체와 일본 완성차 업체의 첫 전략적 협력 사례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신규 공장을 통해 생산된 배터리는 북미 혼다 공장에 독점적으로 공급된다.

LG에너지솔루션과 혼다의 배터리 생산 합작법인인 L-H Battery Company, Inc(가칭)가 미국 배터리 합작공장 기공식을 28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파이프라인 카운티 제퍼슨빌 인근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LG에너지솔루션 김동명 사장, 혼다 자동차 마베 토시히로 사장 및 합작법인 CEO(최고경영자) 겸 LG에너지솔루션 북미지역총괄 이혁재 부사장, COO(최고운영책임자) 릭 리글(Rick Riggall) 등 주요 경영진들이 참석했다. 마이크 드와인(Mike DeWine) 오하이오 주지사, 존 허스테드 부지사 등 주정부 인사들과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신규 공장은 약 18만 6000㎡ 규모로 건설되며, 2024년 말 완공, 2025년 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투자금액 44억 달러, 연간 생산능력 40GWh 규모이며 22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합작법인 CEO 이혁재 부사장은 “오랫동안 자랑스러운 성공의 역사를 써온 두 기업을 대표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LG에너지솔루션은 차별화된

투자 능력과 함께 검증된 글로벌 양산 및 품질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최고의 배터리 회사이며, 혼다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선두주자인 만큼 두 기업의 강점을 활용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배터리 공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작법인의 COO Rick Riggall은 “혼다와 LG에너지솔루션, 오하이오 지역 사회 모두가 함께 하는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이번 합작공장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과 혼다는 지난해 8월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전기차 생산 확대 및 배터리 적시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미국 내 배터리 합작 공장을 함께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공장부지 최종 발표, 11월 기업결합을 신고했으며 올해 1월에는 법인 설립을 마쳤다. 양사는 이번 기공식과 함께 합작공장을 본격적으로 건설해 북미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미래 경쟁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LG에너지솔루션 자동차전지사

업부장을 맡고 있는 김동명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프로젝트는 LG그룹 역사상 혼다와 함께하는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사업이며, 혼다의 1세대 전기차 플랫폼에 사용될 배터리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두 회사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이번 합작공장을 통해 청정 에너지의 미래를 달성하고 탁월한 품질로 선도적인 고객가치를 제공해 나갈 것”고 말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적극적인 글로벌 생산능력 확대를 통해 올해 북미,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생산공장의 생산능력을 300GWh까지 높이고, ▲제품 경쟁력 차별화 ▲스마트팩토리 구현 ▲SCM 체계 구축 ▲미래 준비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해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시설투자를 지난해 대비 50%이상 늘리고, 연간 매출도 25~30% 이상 증가시킨다는 목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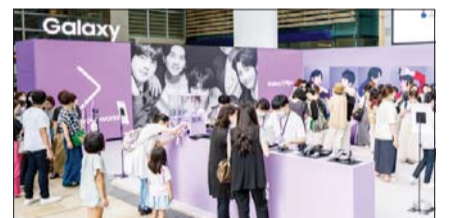
/허정운 기자 zelkova@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갤럭시’ 인기에… 삼성 로고 日서 부활

갤럭시 모바일 재팬 → 삼성 재팬



지난해 일본 도쿄 미드타운 캐노피 스퀘어(Midtown Canopy Square)에서 진행 된 ‘갤럭시 X BTS’ 특별 체험 이벤트.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다시 ‘삼성’으로 돌아왔다. 삼성전자는 일본 시장에서 유일하게 ‘삼성’ 로고 대신 ‘갤럭시’ 로고를 사용해왔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일본법인은 이날 현지 기존 온라인 웹사이트였던 ‘갤럭시모바일 재팬’을 ‘삼성 재팬’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대대적인 변화를 알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갤럭시S6 출시 때부터 모바일 제품에 ‘삼성’을 지우고 ‘갤럭시’ 브랜드를 표기했다. 일본은 애플의 아이폰 점유율이 유독 높은 나라 중 하나다. 그간 ‘갤럭시’로 승부를 보던 삼성은 ‘갤럭시 Z 플립4’와 ‘갤럭시 Z 폴드4’로 일본 시장에서의 선호도를 올렸고, 이에 힘입어 명칭 변경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4월 일본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 갤럭시S23 시리즈에도 ‘삼성’이 각인될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1·4분기 일본에서 점유율 13.5%로 애플(56.8%)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이는 지난 2013년 1·4분기 14.1%를 찍은 후 10년 만에 분기 기준 최고 수준이다. /허정운 기자

한화테크윈, ‘한화비전’으로 사명 변경

글로벌 비전 솔루션 기업 도약
빅데이터 통해 맞춤형 정보 제공

안순홍 한화비전 대표는 “우리의 핵심 경쟁력인 비전 기술에 혁신을 더해 고객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비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자 한다”며 “보안 및 사후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에서 확장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정보와 솔루션을 제공하고 예방,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액션 솔루션 연계 및 비즈니스 운영전략까지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비전은 이후 해외법인이 위치한 국가별 상황에 맞춰 법인명 이하 제품, 솔루션 등에 대한 브랜드를 순차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한화테크윈이 ‘한화비전’으로 사명을 바꾸고 글로벌 비전 솔루션 기업으로 나선다.

글로벌 영상 보안 전문 기업인 한화테크윈은 1일 새로운 사명 한화비전을 공개했다. 한화비전은 영상 보안 솔루션에서 더 나아가 차세대 비전 솔루션을 선도함으로써 고객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